

(제5편) 베트남의 국제농업협력 동향 및 한국과의 관계

김정호*

1. 머리말

베트남은 1986년에 도이머이(Doi Moi) 정책을 채택한 후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면에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가 폐쇄적인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문제점을 깨닫고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하면서 눈부실 정도로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며, 세계시장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할 정도로 농식품 수출국으로서도 위상을 높여 나아가고 있다.

베트남은 1995년에 미국과 국교정상화를 이루었고, 그 해에 아세안(ASEAN)의 7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그리고 미국의 비토권 철회로 세계은행(IBRD), 국제통화기금(IMF), 아세안개발은행(ADB),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에 잇따라 가입함으로써 문호개방 정책을 지속해 왔다. 또한 UN 산하 국제기구들에 대한 외교도 활발히 추진해 왔다.

국제무역협상도 활발히 전개해오고 있는 바, 아세안(ASEAN)을 통하여 2006년에 중국, 2007년에 한국, 2008년에 일본 등과 수출입시장을 개방하였다. 그리고 2015년에 아세안경제공동체(ASEAN/AEC)를 출범시킨 후에 그 추세를 이어 최근에는 2020년 8월에 EU-베트남 FTA를 발효하였고, 발효를 목표로 협상중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및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PP)을 통하여 교역을 확대해 나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한국과 베트남은 1992년 12월 국교를 수립한 후 2020년에 한-베 수교 28주년을 맞이했으며, 그동안 양국은 정치·외교·경제·통상·사회·문화 등 다방면에서 교류와 협력의 폭이 비약적으로 확대되었다. 농업 분야에서는 2014년에 농림축산식품부가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와 양국간 농업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 KREI 시니어이코노미스트, kreikjh@naver.com

이 글에서는 베트남의 국제농업협력 동향 및 한국과의 관계에 대하여 정리하여 소개한다. 소절로 베트남의 무역협상 동향, 한국과의 관계 및 농업협력 동향 등의 순으로 편성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다만, 최근의 코로나 19(COVID-19) 영향을 비롯하여 부분적으로 자료의 한계 때문에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널리 양해를 바란다.

2. 무역협정 동향¹⁾

베트남의 국제무역협정은 크게 나누어 아세안(ASEAN) 회원국으로서 발효되는 협정과 개별 협상을 통한 협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베트남은 1995년에 ASEAN 10개국 가운데 7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으며, 이 때부터 아세안경제공동체(ASEAN/AEC)의 일원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표 1> 베트남의 무역협정 체결 현황(2020년 현재)

| 협정명 | 체결국가 | 체결일자 | 발효일자 | 비고 |
|---------------------|--|------------|------------|--|
| ASEAN/AEC | ASEAN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라오스,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 1995-12-15 | 1996-01-01 | - 2015년 1월: 품목의 93% 관세 철폐 - 2018년 1월: 관세 완전 철폐 |
| ASEAN-China (ACFTA) | ASEAN, 중국 | 2002-11-04 | 2006-01-01 | - 2015년 1월: 품목의 85% 관세 철폐 - 2018년 1월: 품목의 90% 관세 철폐 |
| ASEAN-Korea (AKFTA) | ASEAN, 한국 | 2005-12-13 | 2007-07-29 | - 2013년 1월: 품목의 50% 관세 철폐 - 2015년 1월: 품목의 90% 관세 철폐(베트남) - 2018년 1월: 품목의 90% 관세 철폐(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
| ASEAN-Japan (AJCEP) | ASEAN, 일본 | 2008-04-01 | 2008-12-01 | - 2019년 3월: 품목의 62.2% 관세 철폐 - 2024년 3월: 품목의 87.9% 관세 철폐 |

1) 이 절의 내용은 KOTRA 국가정보-베트남(NAVER 지식백과)에서 발췌하여 정리하였다.

| | | | | |
|---|--|------------|------------|---|
| | | | | - 2025년 3월: 품목의 88.6% 관세 철폐 |
| Vietnam-Japan (VJEPA) | 일본 | 2008-12-25 | 2018-10-01 | - 2020년 3월: 품목의 84.7% 관세 철폐 - 2025년 3월: 품목의 89.4% 관세 철폐 - 2026년 3월: 품목의 92% 관세 철폐 |
| ASEAN-India (AIFTA) | ASEAN | 2003-10-08 | 2010-01-01 | - 2017년 12월: 품목의 71% 관세 철폐 - 2020년 12월: 품목의 78% 관세 철폐 |
| ASEAN-Australia - New Zealand (AANZFTA) | ASEAN | 2009-02-27 | 2010-01-01 | - 2018년 1월: 품목의 85% 관세 철폐 - 2020년 1월: 품목의 90% 관세 철폐 |
| Vietnam-Chile (VCFTA) | 칠레 | 2011-11-11 | 2014-01-01 | - 발효 후 10년까지 품목의 83.89% 관세 철폐 - 발효 후 15년까지 품목의 88.55% 관세 철폐 - 384개 품목, 4.12%는 관세 철폐 제외대상 |
| Vietnam-Korea (VKFTA) | 한국 | 2015-05-05 | 2015-12-20 | - 2018년까지 일반 품목군의 76.9% 관세 철폐 - 2021년까지 민감 품목군의 23.1%(초민감품목수: 200개)를 0~5%로 인하 |
| EAEU-Vietnam FTA | 유라시아 경제연합(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 2015-05-29 | 2016-10-05 | - 2016년 10월 5일~2017년 12월 31일 4,959개 관세선의 관세를 철폐(관세 인하 스케줄은 Decree No. 137/2016/ND-CP 참고) - 2018년도, 155개 관세선에 관세 철폐 |
| CPTPP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칠레,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 2016-02-04 | 2018-12-30 | - 베트남의 발효 일자는 2019년 1월 14일 |
| EU-Vietnam (EVFTA) | EU | 2015-12-01 | 2020-08-01 | - 2020년 8월 1일 발효 - 베트남 발효 직후 약 65% EU 제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고 나머지는 10년에 걸쳐 점진적 무관세 적용 |

| | | | | |
|---------------------|-----------------------------|------------|------------|---|
| ASEAN-Hong Kong FTA | ASEAN | 2017-11-12 | 2019-06-1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은 협정 발효 10년 내 품목의 75% 관세 철폐 - 발효 14년 내 다른 10% 거래품목에 관세인하 예정 |
| RCE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 ASEAN, 중국,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 2020-11-15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를 제외한 나머지 15개국 협의로 타결 - 2022년 발효 전망 |

자료: KOTRA 호치민 무역관 정리. KOTRA 국가정보-베트남 자료에서 재인용.

2.1. ASEAN 자유무역지역 상황²⁾

2.1.1. ASEAN-중국 FTA

ASEAN과 중국은 FTA 기본틀 협정 하에서 얼리 하베스트(EH; 관세 선행 인하)를 실시 중이다. 2003년 10월부터 HS07-08류(야채, 과일)의 관세를 철폐하고, 2004년 1월 이후 01-06류(농산물)의 관세인하를 개시하였다. EH 이외의 관세 인하는 2005년 7월 20일부터 개시하였다.

그 후 기본틀 협정 하의 투자협정에 대해서는 ASEAN과 중국 간에 2009년 8월 서명하였으며, 2015년 11월 21일에 ASEAN과 중국은 FTA 기본틀 수정의 정서에 서명하였다.

2.1.2. ASEAN-인도 FTA

ASEAN과 인도는 2003년 10월에 포괄적 경제협력 기본틀 협정을 체결하였다. 기본협정에는 얼리 하베스트(EH)의 실시 및 2006년 1월부터 관세 인하를 개시하여 2016년 말까지 FTA로서 확립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

2008년 8월에 관세 철폐·인하 방식으로 협상에 실질 합의하였다. 그리고 2009년 8월 13일 방콕에서 개최된 ASEAN-인도 경제장관회의에서 서명되어 2010년 1월 1일에 발효되었다.

그 후 2015년 7월 1일에 ASEAN-인도 서비스 무역협정 및 투자협정이 인도와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미얀마, 싱가포르, 태국 및 베트남 간에 발효되었고, 이어 라오스 간에도 발효되었다.

2) 이 절의 내용은 일본무역진흥기구 홈페이지(<https://www.jetro.go.jp/world/asia/th/trade>)에서 발췌하여 정리하였다.

2.1.3. ASEAN-일본 CEP

ASEAN과 일본은 2003년 10월에 포괄적 경제협력 기본틀 협상을 체결하고, 2005년 4월에 협상을 개시하여 2007년 11월에 타결되었다. 2008년 4월에는 ASEAN 10개국과 일본과의 서명을 완료하였다.

2008년 12월 1일에 우선 일본과 싱가포르,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사이에서 발효되었고, 그 후 브루나이, 말레이시아에 이어 태국(2009년 6월 1일), 캄보디아(2009년 12월), 필리핀(2010년 7월 1일), 인도네시아(2018년 3월)가 발효되었다.

2.1.4. ASEAN-한국 FTA

ASEAN과 한국은 2002년 3월에 산학관공동연구회를 개최하여 2003년 12월부터 정부간 협상을 개시하였다. 2006년 5월에 태국 이외에는 포괄적 경제협력 기본틀 협정을 통하여 상품무역협정에 서명했지만, 태국만 서명하지 않다가 이후 양국 간 협상을 거쳐 2009년 2월에 서명하였다.

2.1.5. ASEAN-호주-NZ · FTA: AANZFTA

ASEAN과 호주 및 뉴질랜드는 2005년 2월부터 협상을 개시하여 2007년 5월까지 9회 협상을 실시해 왔으며, 2008년의 ASEAN-호주-NZ 경제장관회의에서 협상이 타결되었다.

2009년 2월에 ASEAN, 호주, 뉴질랜드의 경제장관 간에 서명하였다. 2010년 1월 1일자로 호주, 뉴질랜드,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의 간에 발효되었다.

2014년 7월에 국가평화질서평의회는 AANZFTA의 제1 수정의정서 개요를 승인하고, 동년 8월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이 의정서는 캄보디아 및 인도네시아를 제외하고 2015년 10월에 발효되었다.

2.1.6. ASEAN-EU · FTA

ASEAN과 EU 간에는 본협정 검토를 위한 회의가 2009년 3월까지 7차례 열렸으나 이후 협상은 중단되었다. 2011년 5월 5일에 개최된 ASEAN-EU 비즈니스 정상회의에서 양 지역의 비즈니스 관계 및 네트워크 강화나 의견교

환 등을 실시하는 등 무역상의 관계 강화를 구축해 나가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2015년 4월 ASEAN과 EU는 FTA에 관한 논의를 재개할 준비를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2.1.7. ASEAN-홍콩 FTA

ASEAN과 홍콩은 2017년 11월 12일에 ASEAN-HKC 자유무역협정(AHKFTA)과 ASEAN-HKC 투자협정(AHKIA)에 서명하였다. AHKFTA는 시장접근의 자유화, 무역원활화, 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규칙, 지역에서의 재화와 서비스의 무역 촉진 등을 목적으로 한 협력의 광범위한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AHKIA는 2019년 6월 17일 홍콩, 태국, 싱가포르,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필리핀 및 말레이시아에 발효되었다.

2.2. 아세안경제공동체(ASEAN/AEC) 상황

아세안은 회원국들 간 협력을 증진하고 외연을 넓히는 것을 주 목적으로 2015년 12월 31일 아세안공동체(ASEAN Community)를 출범시켰다. 1968년 설립 후 47년 만에 '공동체' 수준으로 높아진 아세안 지역 통합은 정치·안보공동체(Political-Security Community)와 경제공동체(Economic Community), 사회·문화공동체(Socio-Cultural Community) 등 3개 축에 기반하고 있다.

2018년 기준 인구 6억 5,000만 명으로 아시아 3위, 세계 6위 규모 경제권으로 발돋움한 아세안경제공동체는 지역경제권 중에서도 국제사회의 커다란 주목을 받아왔다.

아세안을 하나의 시장이자 생산기지로 묶는 아세안경제공동체 목표가 실현된다면, 회원국들 간에 상품과 서비스, 투자, 자본 및 숙련 인력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동남아판 유럽연합(EU)의 꿈이 보다 현실에 가까워질 것이라는 기대감 덕분이었다.

실제로 지난 4년간 아세안경제공동체는 단일 경제권 구축에 필수적인 시장 통합에 팔을 걷어붙여 왔다. 우선 10개 회원국 간 상품 무역에 부과되는 관세가 사라졌다.

2003년 1월 '아세안자유무역지대(ASEAN Free Trade Area)' 발효 후 지속적으로 낮아져온 관세는 2018년 1월 1일 전면 철폐됐다.

무역 절차 간소화를 통한 역내 교역 활성화를 위해 ‘아세안 싱글 윈도우(ASEAN Single Window)’ 시스템을 추진해온 것 또한 빼놓을 수 없다. 아세안은 회원국들의 통관 체계를 상호 연계한 전자통관시스템인 싱글 윈도우를 2019년 말에 완성하였다.

2020년 4월에 출범 5년을 맞아 의장국을 맡은 베트남은 “단결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아세안(Cohesive and Responsive ASEAN)”을 올해의 테마로 소개하였다.

베트남 외교부는 아세안의 결속과 경제 통합 및 정체성 등을 강화하는 노력이 단결된 아세안을 나타낸다고 강조하였다. 최근 비약적인 경제성장 가도를 달리며 아세안 내 영향력 확대를 꾀하고 있는 베트남이 야심차게 내세운 비전에서 시선을 사로잡는 것은 경제 통합이었다.

아세안은 AEC 청사진에 따라 4개 영역에서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첫 번째 영역은 단일시장과 단일생산기지의 구축이다. 이는 무역과 투자에서 장벽을 제거하는 것으로 경제공동체의 필요조건이다.

아세안은 상품, 서비스, 투자, 숙련노동의 자유로운 이동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추진한다. 상품무역 분야에서는 관세 철폐, 무역 원활화, 비관세장벽 철폐를 추진하고 있다.

두 번째 영역은 아세안을 경쟁력 있는 경제지대로 만들기 위한 체제의 구축이다. 즉 투자자, 기업, 소비자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소비자 보호, 경쟁촉진정책, 지적재산권보호 체제를 구축하고 나아가 인프라를 개발하고, 이중과세방지 협정을 체결하며, 전자상거래를 촉진한다.

아세안국가들 간에는 고속도로가 연결되고, 국가 간 전력송배전망도 구축하고 있다. 아세안 역내의 항공 네트워크를 강화하려는 오픈스카이 정책도 추진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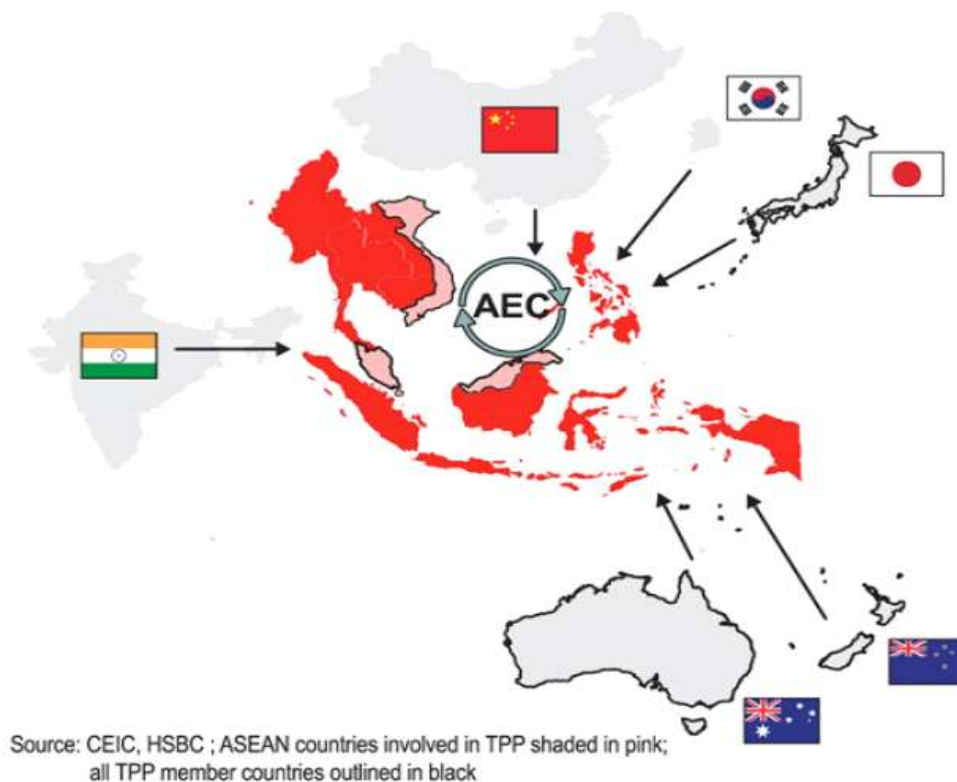
세 번째 영역은 아세안 국가 간 및 개별 국가 내의 소득 불균형을 축소하는 것이다. 1990년대 중반 인도차이나 국가들이 아세안에 가입하면서 개발격차 문제는 아세안의 경제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근본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때문에 균형개발은 AEC 성공의 필요조건이자 충분조건이다. 균형개발을 위한 AEC 중간목표 프로그램은 중소기업 육성과 아세안통합 이니셔티브(IAI)를 추진하는 것이다.

IAI는 역내의 개발격차를 줄이기 위해 CLMV(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베트남) 국가의 통합을 가속화할 목적으로 기술지원이나 역량 구축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실행하고 있다.

마지막 영역은 세계경제와의 통합이다. 아세안과 세계경제의 무역과 투자 연계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주요 무역 대상국과 FTA를 체결할 것이다. 대외 경제관계에서는 아세안이 중심이 되는 ‘아세안 중심성’ (ASEAN centrality)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그림 1> ASEAN/AEC와 RCEP의 관계



2.3.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상황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은 ASEAN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그리고 호주·뉴질랜드·인도 등을 포함한 16개국이 관세장벽 철폐를 목표로 하는 자유무역협정이다.

아태지역 16개국 정상들은 2012년 11월 20일에 캄보디아 프놈펜 평화궁전에서 개최된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발표한 공동선언문을 바탕으로 RCEP 협상을 2013년에 개시하여 2015년까지 타결한다는데 합의하였다.

그러나 이후 일정이 지연되면서 2015년 11월 22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회의에서 2016년까지 RCEP를 타결하는 정상 공동선언문을 채택했으며, 협상 7년만인 2019년 11월 4일에 협정문이 타결되었다. 2012년 11

월에 협상 개시를 선언한 후 협정문 타결에 이르기까지 약 7년간 28차례 공식협상, 16차례 장관회의, 3차례 정상회의가 이어졌다.

그 후 2019년 11월 4일에 인도를 제외한 15개국의 협정이 타결되었으며, 2020년 11월 15일에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화상으로 개최된 제4차 RCEP 정상회의에서 15개국 정상이 협정 서명식에 참석하였다.

RCEP 체결로 아세안 10개국과 상품관세 철폐 확대(최대 94.5%) 등 아세안 상품시장이 추가로 개방된 점에서 의의가 크다. 특히 기존의 FTA에서 고려되지 않은 사항으로, 그동안에 수출기업들이 서로 다른 원산지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비용을 지출해야 했지만, 금번의 RCEP 체결로 원산지 기준이 통일되어 비용 절감이 가능해졌다.

여기서 RCEP의 수입관세 타결 내용은 아세안 10국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관세양허안이 기본틀로 자리잡게 되었다는 점에서 특기할만하다.

RCEP가 체결됨으로써 역내 인구 34억 명, 무역규모 10조 1310억 달러(약 1경 1043조 원), 명목 국내총생산(GDP) 19조 7,640만 달러에 이르는 자유무역지대가 성립하였다. 이로써 명목GDP 기준으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18조 달러)과 유럽연합(EU, 17조 6000억 달러)을 능가하는 세계 최대의 경제블록이 출범한 셈이다.

<그림 2>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개요



자료: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3. 베트남과 한국과의 관계³⁾

3.1. 양국의 협정 현황

한국과 베트남은 1992년 12월 22일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를 맺은 후 정치·외교·경제·통상·사회·문화 등 다방면에서 교류와 협력의 폭을 확대해 나아가고 있다. 특히 수교 10년 차를 맞은 2001년 8월에 르엉(Luong) 주석이 방한하여 양국 정상은 21세기에 양국 간 우호협력 관계를 한 차원 높게 발전시키기 위한 ‘한-베트남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 공동선언을 발표하면서 이후 교류 협력이 비약적으로 확대되었다.

<표 2> 베트남과 한국의 협정 추진경과(1992~2015년)

| 연월일 | 협정 내용 | 비고 |
|--------------|--------------------------|----------|
| 1992. 12. 22 | 한국-베트남 외교관계 수립 | |
| 1993. 2. 1 | 경제 및 기술협력 협정 | |
| 1993. 5. 1 | 투자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 2003년 개정 |
| 1994. 5. 1 | 이중과세방지협정 | 2014년 개정 |
| 1994. 8. 1 | 문화협력협정 | |
| 1995. 3. 1 | 세관협력협정 | |
| 1995. 4. 1 | 해상운송협정 | |
| 1995. 4. 1 | 과학 및 기술협력협정 | |
| 1995. 4. 1 |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 |
| 1996. 11. 1 | 원자력 평화이용 연구협정 | |
| 2002. 12. 1 | 관광분야 협력협정 | |
| 2005. 4. 1 | 무상원조 및 기술협력 협정 | |
| 2007. 6. 1 | 한국-ASEAN FTA 발효 | |
| 2009. 10. 21 | 안전보건기술협력협정 체결 | |
| 2014. 7. 1 | 군사정보보호 협력 약정 | |
| 2015. 1. 1 | 한-베트남 농업분야 교류협력 촉진 협력 약정 | |
| 2015. 12. 20 | 한국-베트남 FTA 발효 | |

자료: 대한민국 외교부.

3) 이 절의 내용은 2020년 12월 기준으로 작성된 kotra 국가정보- 베트남(네이버 지식백과, 베트남과 한국과의 관계) 및 농림축산식품부 자료를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최근 문재인 정부에서 양국 관계가 진전된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017년 11월 1일에는 베트남 다낭시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의에 문 대통령이 참석하여 한-베트남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2018년 3월 23일에는 문 대통령이 베트남에 국민 방문하여 한-베트남 미래지향공동선언문을 채택하였다.

2019년 11월 25일에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베트남의 응웬쑤언푹 총리가 방한하였으며, 이종과세방지협정 개정의정서, KOTRA-VIETRATDE 협력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2019년 11월 27일에는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에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태국, 캄보디아 등의 정상이 참석하여 ‘한강-메콩강 선언’ (ICT, 인프라, 문화관광, 환경, 농촌 등)을 채택하고, 2021년을 한-메콩 교류의 해로 지정하여 한-메콩 정상회의 정례화에 합의하였다.

2020년 4월 14일에는 코로나19 아세안+3 특별정상회의(화상)에 응웬쑤언푹 총리가 아세안 의장 자격으로 주재하였으며, 코로나19에 대한 아세안+3 정상회의 공동성명을 채택하였다. 2020년 11월 13일에는 제2차 한-메콩 정상회의(화상)에서 한국과 메콩 5개국(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태국, 캄보디아)의 협력 관계가 동반자 관계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킬 것을 제안하였으며, 각국 정상 전원이 적극적으로 지지 의사를 밝혔다.

3.2. 최근 양국 간의 현안 이슈

3.2.1. 정치

한국과 베트남은 2009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맺은 이후 관계 발전을 지속하여 도모하고 있다. 특히 2018년 3월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은 베트남 지도부 4인과 정상회담을 했으며, 현재의 양국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심화하기 위해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진전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또한 교역 1,000억 달러 달성 협력, 소재부품산업 협력, 교통 및 인프라 협력, 건설 및 도시개발 협력, 4차 산업혁명 대응 협력, 고용허가제 등의 6개 분야에서 MOU를 체결하는 등 협력 심화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또한 한국과 베트남은 1992년 국교 수립 후 2020년에 한-베 수교 28주년을 맞이하여 다방면에서 양국의 교류와 협력을 다지게 되었다. 지난 28년 동안 양국은 정치·외교·경제·통상·사회·문화 등 다방면에서 교류와 협력의 폭이 비약적으로 확대되었다.

2020년 11월 초 우리나라 박병석 국회의장은 베트남 방문 시에 응웬쑤언 폭 총리와 양국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는데, 이 때 2022년 양국 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미래 구상이 제안되기도 하였다.

3.2.2. 경제

베트남은 한국의 3대 수출시장(중국, 미국, 베트남 순)이자 4대 교역국(중국, 미국, 일본, 베트남 순)으로 한국의 주요 교역 파트너이다. 2019년 한국과 베트남의 교역 규모는 692억 달러를 달성했는데, 이는 한국과 베트남이 국교를 재개한 1992년 대비 140배나 성장한 것이다. 특히 베트남은 한국의 아세안 제1위 교역대상국으로 그 비중이 45.8%에 달한다.

투자 부문에서도 베트남은 한국의 3대 투자 대상국으로 부상하였다. 한국은 1988년 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누계 약 703억 8,414만 달러를 베트남에 투자함으로써 대베트남 최대 투자국으로서 지위를 유지 중이다. 2020년 10월 누적 금액 기준으로 한국의 대베트남 주요 투자 업종은 제조업, 부동산, 건설, 물류 등이며, 이 중 제조업 투자 비중이 73.2%로 가장 높다.

한편, 2017년 11월에 문재인 대통령은 ‘신남방정책’을 발표하고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는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 수준을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4대 강국 수준으로 제고한다는 목표인데, 아세안 10개국 가운데 베트남이 한국과 교역액이 가장 커 신남방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협력 파트너로 인지도가 높다.

또한, 2020년 11월 초 베트남 총리는 베트남을 방문한 한국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양국 교역액을 최근 690억 달러에서 1,000억 달러 수준으로 성장시킬 것을 제안하며 양국의 협력과 동반성장에 대한 기대를 전하였다.

한국과 베트남의 우호 관계는 2022년 공산당 전국대표회의를 통해 정권 교체가 이뤄져도 변화는 없을 전망이다.

베트남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한국의 영향력은 공고히 자리잡은 반면에,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는 예전만 못해 중요성이 더욱 혼미해졌다. 베트남 기획투자부 관계자는 “한국은 베트남 경제가 나아가야 할 미래를 제시하는 국가”라며 “공산당 지도부가 바뀌더라도 양국의 파트너십은 한층 발전할 것”이라고 단언하였다.

3.2.3. 문화

최근 베트남 내 한류는 드라마, K-Pop, K-Beauty, K-Food 등에서 예능 방송, 관광, 도서, 교육 등으로 영역이 점점 확대되는 추세이다. 베트남에서 한류는 1990년대 말~2000년대 초 유리구두, 겨울연가, 대장금 등의 드라마를 중심으로 시작되었고, 2010년 전후 1.5~2세대 한국 아이돌의 인기를 기반으로 K-Pop이 큰 사랑을 받았다.

이렇게 드라마, K-Pop 등의 한국 문화콘텐츠 인기는 식품이나 화장품과 같은 한국제품 판매량 증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자연스럽게 K-Beauty와 K-Food로 관심이 옮겨갔다.

베트남 소비자들에게 인지도가 높은 한국기업 브랜드식품은 초코파이, 쌀 음료, 라면 등이 있으며, 한국산 과일, 홍삼, 김치 등도 선호도가 높다.

한편, 베트남 화장품 시장은 현지 브랜드의 존재감이 상대적으로 미미하여 대부분 수입품이 널리 유통되는데, 수입 화장품 가운데 한국은 최대 시장점유율(30% 상회)을 기록하고 있다.

최근에 베트남의 한류 중심에는 베트남 축구대표팀 ‘박항서 감독’이 있다. 박 감독은 2017년 10월 베트남 U23 축구 및 국가대표팀을 겸직한 이래, 역대 주요 리그에서 연승을 거두며 차별화된 인지도를 구축하였다. 현재도 ‘박항서 신드롬’이라고 불리 정도로 베트남 내에서 그의 인기는 계속되고 있으며,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더욱 크게 증가하는 동인이기도 하다.

또한 드라마나 음악 외에도 롯데시네마와 CGV의 적극적인 베트남 극장산업 투자로 우리 영화의 수출 활로가 넓어졌다. 실제로 2019년 기준으로 롯데시네마는 시장 점유율 30%을, 그리고 CGV는 시장 점유율이 43%에 달하였다.

이 외에도, 칸영화제 수상작인 우리나라 영화 ‘기생충’ 역시 베트남에서 한국영화 흥행 기록을 새로 썼으며, K-Pop 콘텐츠를 활용한 소매유통 사업이 시도되고 있다.

도서 부문에서도 우리나라 서점이 현지 서점과 협력해 베트남에 진출하였고, 한국어학 교재에 수요가 한정됐던 과거에 비교하여 소설 분야에서도 미약하지만 차근히 한국의 입지가 확대 중이다.

<그림 3> 베트남의 한류 문화 모습



4. 한국과의 농업협력 동향

4.1. 농식품 교역⁴⁾

한국과 베트남은 2007년 6월에 한국-ASEAN FTA 체결을 계기로 경제교류가 증진되기 시작하여 2015년 12월에 발효된 한국-베트남 FTA를 통하여 본격적으로 농식품 분야에서도 양국간 무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한-베트남 FTA는 기본적으로 기존에 체결된 한-아세안 FTA에서 민감 및 초민감 품목으로 분류된 농축산물을 추가 개방하는 방식으로 협상을 타결하였다.

4) 이 절의 내용은 석준호 외(2019) 및 농림축산식품부 자료를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표 3> 한-베트남 FTA 농산물 양허협상 결과(2019년 현재)

| 구분 | 양허형태 | 주요품목 | 세번수 |
|-------|--------|--|-----|
| 식량작물 | 5년 철폐 | 고구마(냉동), 곡물배아(쌀의 것) | 2 |
| | 15년 철폐 | 팥(건조/기타) | 1 |
| | 소계 | | 3 |
| 축산물 | 즉시 철폐 | 닭간(냉동), 닭 기타 설육(냉동), 쇠고기(육과식용 설육/건조/훈제) | 4 |
| | 3년 철폐 | 치즈(커드), 조란(기타 신선란), 소식용설육(신선/냉장) | 13 |
| | 10년 철폐 | 돼지고기(냉동/삼겹살), 돼지고기(냉동/기타) | 2 |
| | 15년 철폐 | 천연꿀 | 1 |
| | 소계 | | 20 |
| 과실 | 10년 철폐 | 파인애플, 구아버, 망고, 망고스틴, 파파야, 두리언 | 10 |
| | 소계 | | 10 |
| 채소,특작 | 즉시 철폐 | 양송이버섯 | 1 |
| | 3년 철폐 | 들깨 | 1 |
| | 5년 철폐 | 표고버섯(건조), 파(건조), 호박(건조) | 5 |
| | 10년 철폐 | 생강(파쇄 또는 분쇄/신선·냉장), 생강(건조, 기타), 마늘(냉동, 건조) | 7 |
| | 소계 | | 14 |
| 가공식품 | 즉시 철폐 | 국수, 맥아당, 캐러멜당, 곡류조제식료품(기타) | 6 |
| | 3년 철폐 | 기타당, 유아용조제식료품, 라이스페이퍼 | 9 |
| | 5년 철폐 | 대두유(정제유/식품용), 간장, 춘장, 두부, 꼬냑 | 29 |
| | 10년 철폐 | 파인애플(조제저장처리), 과실혼합물 | 5 |
| | 15년 철폐 | 고구마전분 | 1 |
| | 소계 | | 50 |
| 기타 | 3년 철폐 | 미강유와 그 분획물 | 1 |
| | 5년 철폐 | 얇(냉동), 캐슈넛, 절화(기타/신선), 기타사료 | 18 |
| | 1년 철폐 | 국화, 장미, 심비디움, 호도(탈각), 보조사료(기타) | 6 |
| | 소계 | | 25 |
| 총계 | | | 122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19년 말 기준으로 베트남에 대한 농식품 수입·수출액은 평년대비는 대폭 증가(각각 88.4%, 47.1%)하였으나, 2018년 (4년차)에 비해서는 소폭 감소(각각 12.7%, 1.5%)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한-베트남 FTA 이행으로 인하여 양국간 농식품 교역이 급격히 증가하였지만, 이행 5년차에 교역 증가율이 정체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베트남산 농식품의 수입 동향을 보면, 곡물 수입액은 감자, 밀, 완두 등의 수입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수입품목인 대두박, 쌀, 타피오카 등이 감소함에 따라 FTA 발효 전 평년대비 39.1%, 2018년 대비 70.3% 감소하였다.

특히 베트남산 쌀 수입액의 감소가 두드러졌는데, 이는 베트남이 우리나라 aT에서 낙찰 받은 쌀 MMA 물량이 아직까지 수입되지 않아 수입통계에 집계되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 베트남산 농산물 수입액 동향(2011~2019년)



〈그림 5〉 한국산 농산물의 베트남 수출액 동향(2011~2019년)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석준호 외(2019)에서 재인용.

베트남산 농식품 수입액을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15년 8.3억 달러, 2016년 9.1억 달러, 2017년 11.0억 달러, 2018년 14.6억 달러, 2019년 12.8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한-베트남 FTA 이행 5년차인 2019년에는 베트남산 농축산물 수입액이 12.8억 달러로 발효 전 평년대비 88.4%나 증가하였으며, 4년차 대비로는 12.7% 감소한 액수이다. FTA 이행 5년차인 2019년에 우리나라 전체 농축산물 수입에서 베트남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3.7%로, 발효 전보다 평년대비 1.4%p 상승하였고 전년대비 0.5%p 하락하였다.

한편, 우리나라 농식품의 베트남 수출 실적을 보면, 2015년 3.7억 달러, 2016년 4.0억 달러, 2017년 3.7억 달러, 2018년 4.6억 달러, 2019년 4.6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농축산물 수출을 부류별로 보면, 임산물 수출액은 FTA 발효 전 평년대비 감소한 반면, 곡물, 과일·채소, 가공식품, 축산물 수출은 증가하였다. 특히, 과일·채소 수출액은 딸기, 포도, 배, 기타과실 등이 크게 늘어나 FTA 발효 전 평년대비 382%나 증가하였다.

한-베트남 FTA 이행 5년차인 2019년 농축산물 수출액은 4.6억 달러로 발효 전 평년대비 47.1% 증가하였고 4년차 대비 1.5% 감소하였다. 2019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농축산물 수출에서 베트남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7.1%로 한-베트남 FTA 발효 전보다 각각 평년대비 1.8%p, 전년대비 0.4%p 상승하였다.

4.2. 농업 분야의 교류와 협력⁵⁾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ODA 중점협력국으로서 전 세계 개도국 가운데 개발협력의 비중은 매우 높은 편이다. 한-베트남 농업 개발협력은 역량 개발과 기술원조 이외에 프로젝트형 협력사업도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베트남에 지원한 ODA 규모는 총 21억 9354만 달러이다. 연도별 지원 총액을 보면, 2010년의 3억 달러 수준에서 2017년에는 2억 달러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사회인프라 및 서비스 분야에 대한 지원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지원과 비슷하게 우리나라에서도 무상원조보다 유상원조 방식의 지원이 훨씬 많아, 2017년에는 유상원조의 비율이 83%이고 무상원조는 17%이었다.

5) 이 절의 내용은 허장 외(2019) 및 농림축산식품부 자료를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이러한 ODA 실적 중에 농림수산 분야에 대한 지원은 2010년 100만 달러에서 2017년 425만 달러로 4배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동 기간 농림수산 분야가 전체 베트남 지원 ODA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0.3%에서 2.2%로 증가하였다.

우리나라가 지원하는 농림수산 분야의 ODA는 대부분 농업 분야에 중점이 맞춰져 있으며, 임업 분야 및 수산분야에 대한 지원은 낮은 실정이다

또한, 우리나라가 베트남에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진행한 ODA 사업은 총 102개로 프로젝트 11건, 전문가 및 봉사단 파견 25건, 기타 기술협력 37건, 개도국 유학생 및 연수생 지원 22건, 국제기구의 특정목적 프로그램 및 기금 지원 6건, 국내·국제 NGO에 대한 지원 및 공공-민간 파트너십 지원 1건으로 파악되었다. 그 중에서 농업부문의 지원 분야를 보면, 농업관련 교육·훈련이 2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농업개발 22건, 농촌개발 12건, 축산 9건, 농업정책 및 행정관리 6건 순으로 지원되었다.

현재 베트남을 대상으로 신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는 KOICA에서 북부 뚜옌꽝 성 2개 현을 대상으로 1,500만 달러 규모의 2019~2023년 5개년 사업이 있다. 사업내용은 여성 역량강화(여성 기금대출과 능력 향상), 소득증대 지원(취약계층 작목반 지원, 영농기술과 유통 활성화), 농업인프라(도로, 관개 시설), 교육(교실 및 기자재, 교사 등 역량 강화), 보건(보건소 지원, 의료인 역량 강화, 주민 건강증진), 거버넌스(지방공무원 역량 강화) 등이다.

KOICA가 기획하고 있는 또 하나의 농촌개발 사업은 중부 고원지대에 위치한 팡빈성에서 ‘팡빈성 지속가능한 소득증대 및 농촌지역 인적자원 개발사업’이 2021~2025 사업기간으로 총 1,476만 달러(한국 998만 달러, 베트남 478만 달러) 규모로 진행되는 것이다. 사업내용은 소득증대 프로그램으로 특산물(꿀) 생산·유통시스템 구축을 위한 하이테크 농업기술 전수, 가치사슬 모델 구축, 지역관광 활성화 등이고 위해 농업기술을 보유한 청년 스타트업 지원과 인력 직업훈련 사업도 있다. 아울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사회 보건 인력과 직업훈련 고등인력 양성 등이 포함되어 있다.

농식품부는 과거 ‘베트남 채소계약재배 시범단지 조성사업(2011~2015/260만불)’을 통해 베트남 북부에 시범포 조성, 육묘용 하우스, 중형관정, 창고 지원 등의 시설구축과 기자재 지원, 전문가 파견, 국내초청연수, 시범영농지도, 계약재배 지원, 워크숍 개최 등을 시행하였다.

현재는 2018~2022년의 사업기간 32억 원의 사업예산으로 ‘베트남 우수농산물 저장 유통센터 지원사업’을 시행중이다. 베트남 북부에서 재배되는 다양한 채소 작물이 VietGap과 같은 인증을 받을 수 있는 품질로 생산될 수

있도록 유통을 개선하려는 사업이다. 아울러 2019~2023년 기간에 53억 원의 사업규모로 ‘베트남 홍강델타 쌀가치사슬 향상사업’을 새로 착수하고 있다. 그리고 농촌진흥청은 해외농업기술 원조를 위해 농업기술 분야에 관련된 협력사업을 시범사업 및 연구 네트워크 형태로 수행하고 있다.

5. 맺음말

한국과 베트남은 1992년 12월 22일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를 맺은 후 다방면에서 교류와 협력의 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경제 분야에서는 2007년 6월에 한국-ASEAN FTA 체결을 계기로 경제교류를 증진하기 시작하여 2015년 12월에 발효된 한국-베트남 FTA를 통하여 본격적으로 농식품 분야에서도 양국간 무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양국 간의 무역은 2015년 12월에 한-베트남 FTA가 발효되면서 크게 활성화되었다. 베트남은 우리나라 농축산물 수출액이 전 세계에서 4번째로 많아 2018년에 4억 6천만 달러의 농축산물을 수출하였고, 연평균 증가율은 7.3%에 달한다. 우리가 베트남에서 수입하는 농식품도 관세율 인하 등으로 최근 들어 수입액이 연평균 20% 이상씩 증가하고 있다.

베트남의 식품시장은 세계적으로도 유망한 시장으로 평가된다. 1억 명이 가까운 풍부한 인구 및 총 인구의 3할에 해당하는 청년층이 베트남 식품시장의 성장잠재력을 강력히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한류 문화도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을 위한 좋은 기회요인으로 큰 몫을 담당하고 있으며, 아세안 국가 중에서도 한국과의 교류가 가장 활발하다고 볼 수 있다.

해외투자 부문에서도 베트남은 한국의 가장 중요한 투자 대상국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민간업체들도 다양한 형태로 베트남에 진출하고 있다. 채소와 특용작물을 생산하는 농장에 직접 투자하여 국내에 반입하는 사례도 있으며, 식품가공업에는 축산과 수산 분야에 진출하여 베트남 소비자들에게 고품질의 식품을 공급하여 명성을 얻고 있다.

베트남에 대한 농업 협력사업은 역량 개발과 기술원조 이외에 프로젝트형 사업도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KOICA는 농촌개발사업에 우리의 새마을운동 방식을 활용하고 있으며, 농식품부는 농업생산과 농산물유통의 가치사슬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베트남의 낙후된 농업생산기반을 확충하고 비위생적인 농산물유통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현대화를 추진하며, 민간업체와 계약재배를 추진하는 방식으로 농업·농촌의 성장 역량을 키워나가고 있다.

향후 농업 분야의 바람직한 협력 방안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양국 간의 개발협력이 경제협력과 밀접하게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베트남 정부가 추구하는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에 대응하여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경제 및 개발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참고문헌

- 김상현 외, 2018, “베트남 소비자의 한국산 농식품 구입 의향 결정요인 분석”, 『농촌경제 제 41권 4호(2018.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태운 외, 2012, 『한국의 메콩 지역개발 중장기 협력방안 : 농업, 인프라 및 인적자원개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박영욱, 2015, 『국제농업협력사업의 추진현황과 전략』, 한국농어촌공사.
- 석준호 외, 2019, “2019년 한-베트남 FTA 발효 5년, 농축산물 교역 동향”, 『FTA 이슈 리포트 제16호(2019. 12. 2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현근 외, 2019, 『베트남의 농업과 농식품 교역 동향』(해외농업시리즈 2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2021, 『2021년 해외한류 실태보고서』.
- 허장 외, 2017, 『국제농업개발협력 주요국별 중점추진 분야 선정 연구- 아시아권 7개국을 중심으로(국별보고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허장 외, 2019, 『한-베트남 농업분야 중장기 협력전략 수립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관련 홈페이지

- 대한민국 외교부 국가/지역정보 <http://www.mofa.go.kr/www/nation/>
-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사업 <https://www.mafra.go.kr/mafra/>
-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RCEP추진단 <https://www.motie.go.kr/motie/ne/>
- KOTRA 국가정보 <https://www.kotra.or.kr/biz/>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해외이슈조사 <https://www.kati.net/board/report/>
-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 <https://www.mard.gov.vn/>
- 베트남 통계청(GSO) <https://www.gso.gov.vn/>
- 베트남 뉴스 https://www.vinahanin.com/vietnam_news
- 구글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
- 네이버 나무위키 <https://namu.wiki/w/>
- 일본무역진흥기구 홈페이지 <https://www.jetro.go.jp/world/asia/th/trade>